

## 세종 · 충청포럼 공동 학술세미나

-분권과 균형발전 세종시로 통한다-



세종 · 충청포럼상임의장대전발전연구원장 이창기는 '분권과 균형발전 세종시로 통한다'라는 주제로 17일(월) 10: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종시 출범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세종 · 충청 포럼이 주관하고 서울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NGO학회가 주최하고, 대전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가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이창기 세종충청포럼 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세종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공의 가치인 국토균형발전과 분권을 촉진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따라서 세종시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고 자족기능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세미나가 지방 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박용성 단국대 교수는 '행정수도 이원화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하며 행정수도 이원화에 대해 효과적인 통합운영의 제약, 정부부처 내부의 의사소통 및 통합 저해, 국가 위기상황의 대처능력 저하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세종시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세종시와 관련한 논의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관련한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IT기반의 디지털협업시스템 및 스마트워킹시스템을 조속히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방안'의 주제

발표에서는 "국민행복시대를 맞아 대다수의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 기업, 국민 등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하고, 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행복증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그 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시된다"며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섯 가지 관점에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승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사회로 조명래 단국대 교수, 김중면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유재원 한양대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참석해 열린 토론을 나누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서울과 세종시로의 행정이원화의 효율성 문제보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기존의 과천시사, 대전정부청사 설립 당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부작용 비효율성 등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여 세종시 출범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이나 발생 될 문제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의 입체적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실장은 "정부의 각 부처 업무보고를 보면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도 중앙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어 있다. 5월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시·군·구가 주민행복을 위해 각각 핵심 역량을 집중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을 나누도록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 좋은시민 정책아카데미 제2차 토론회 ”

- 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리더들에게 묻는다 -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은 4일(화)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좋은시민 정책아카데미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전도시철도 2호선 관련 생태교통 도시를 향한 대전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좋은시민 정책아카데미 제2차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용남 지속가능 도시연구센터 소장은 도시철도 논쟁의 극복을 바라며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 친화적인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소개하며 생태교통도시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과 지선기교통 시스템 구축,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등 인간지향적인 가로 환경 조성과 공공공간의 지속적 확충 등을 얘기하였다. 생태교통도시를 향한 전략과 과제로서 특히 간선급행버스(BRT)나 노면전차(Tram)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TOD) 시행 등을 얘기하였다.

박용남 소장은 “현재 대전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싼 논쟁으로 지역 자치구, 공동체 구성원 정치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불일치는 물론 갈등도 심각한 상태”라며, “민선 5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시스템(고가 또는 노면)을 선정할 경우 부작용은 물론 휴유증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중교통시스템을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기호 대전시 도시철도기획단장은 현재까지의 대전시가 추진해가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을 정리해 시민들에게 알려주며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건설방식을 꾸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지상고가와 노면전차는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 민관정위위원회와 기술자문단의 검토, 대전간선교통기능 등을 고려해 건설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시민 정책아카데미 김동식 회원은 “주민참여형 의사결정은 현재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갈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그 결정 결과에 더 큰 갈등만 증폭시킬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임성만 회원은 “고가든 노면이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일반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



## “ 좋은시민 정책아카데미 제4차 토론회 ”

-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해 -

장수찬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사회자본이란 간단히 말해서, 사회가 구성원들 사이의 네트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그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라고 말하며 2007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사회적 자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OECD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상태를 설명하였다.

이후 장교수는 “현재 한국사회는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나 시민사회에 수준 높은 전문성, 질 높은 교육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득하다며 ‘최근에 베이비부머 고학력자들이 은퇴하면서 시민사회의 인적 자원은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아직도 파편화되고 분절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방정부가 나서서 시민들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하고, 시민역량이 성숙해야 제도역량도 높아진다. 공동체적 지향성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망에 참여하려는 노력과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좋은시민 정책아카데미 회원은 “사회적 자본에 대해 많은 세미나와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시민에게 사회적 자본에 대해 이론적 구체적 의미를 전달하는 곳은 없었다. 시민들에게 의미도 모르는 사회적 자본을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의 장이 곳곳에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

## “ 좋은시민 정책아카데미 제5차 토론회 ”

- 사회적경제 생태계만들기 -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는 주제발표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방법 중에 협동조합창업을 사례로 얘기하였다.

작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창업사례,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방법 등 운영전반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김제선 이사는 “협동의 경제, 사회적 경제, 시장도 정부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자발적 개인의 참여에 의해 경제적 목표와 함께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형태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생활환경 개선, 복리 증진,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 하면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창구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창기 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공유하면서 적지만 소중한 단체로서 사회적기업을 인정하고 그들의 발전을 위한 우리 시민들의 역할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총평했다. [↓](#)



## “ 도서 및 미술품 기증협약식 ”

- 고희호 교수 개인소장 도서 및 미술품 기증 -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은 26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고희호 교수와 도서 및 미술품 기증 협약식을 갖고 고 교수의 개인소장 도서와 미술품을 기증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고 교수가 지역시민들과 연구원들의 정서함양과 독서문화 진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개인소장 도서와 미술품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루어졌다.

고 교수는 “교수 재직시절부터 축적해 온 도서를 대전발전연구원에 기증하는 것이 대전시민들을 위해 가장 뜻깊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증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기증된 자료들을 부담없이 애용하고,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창기 원장은 “순때 묻은 귀중한 자료를 선뜻 기증하기로 결심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고 교수의 뜻을 받들어 자료실을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애용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이번 기증이 다른 많은 학자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어서 기증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협약체결 후에 고 교수는 개인 소장 도서 약3,000여권을 2~3회에 걸쳐 분할 기증하고, 개인소장 미술품 5점 또한 기증한다. 기증된 도서는 고희호 경제학과 교수 코너를 새롭게 꾸며 보관할 예정이다. j



## “ 제2차 대전사회적자본 포럼 개최 ”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 사회적자본연구센터(센터장 최길수)에서는 대전의 사회적자본과 시민사회의 역할 모색을 위한 사회적자본 포럼을 27일(목) 오후 3시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자본과 시민사회의 역할(송경재경희대)’이라는 주제발표 후 우리 지역의 관련 전문가와 지속가능성 시민위원회,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송경재교수는 한국의 사회적자본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 가능성에 주목했으나, 최근의 연구흐름은 사회적 자본의 효과로서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 구체화된 실증연구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질문을 열었다.

사회적자본과 시민참여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여기서는 2007년과 2010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 리서치에 의해 두 차례 시행했던 설문 조사를 비교분석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3년의 기간 동안 타인신뢰와 정부신뢰, 공동체이익의 중요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민단체 참여와 정치활동 참여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적 거버넌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민주주의 학습장이 마련되고 그 역할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바람직하게 구축될 수 있음을 역설하면서, 정부, 국회 등의 공적조직에서 수행하는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시민사회의 자체적인 노력, 즉 두 트랙(two-track)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의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뢰의 특성을 일반화된 형태, 공적신뢰, 사적신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시민 참여외의 인과성을 계량적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



## “ 초·중·고 학교시설의 안전을 위한 교사 간담회 ”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은 24일(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시설 안전 확보방안을 논의하고자 초·중·고 학교시설의 안전을 위한 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발전연구원 이형복 책임연구위원, 송승고 복대형 교사, 한발고 문경재 교사, 동방고 강도순 교사, 경덕공고 오원근 교사, 호수돈여중 임성규 교사, 유평초 김경미 교사, 대전경찰서 이광진 차장이 참석하여 학교 CCTV 설치 및 관리와 마을공동체를 활용하는 학교 안전시스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CCTV의 개수 확대가 학교범죄를 무한정 줄여줄지는 않는다. 학교폭력이나 절도부분은 CCTV만으로는 실제 해결될 수는 없다.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과 주변 주민들의 신고의식, 체제시스템 마련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과 CCTV가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없지만 예방과 사후관리 목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CCTV의 화질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활용가능한

자료가 되도록 설치장소, 화면 각도, 범인의 도주경로, 법적 제한선 등을 종합한 컨설팅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 유형에 맞고 현실성 있는 학교 안전시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j



## “ 대전시 환경복지 정책방향 세미나 ”

-대전시 환경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대전시 환경복지 정책방향 세미나가 6월27일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대전발전연구원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행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운영방향에 발맞춰 지역차원에서 기초적인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전발전연구원과 대학, 국책연구소, 시민단체 등의 환경정책 및 환경복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카이스트 최창규교수와 충북대학교 연평식 교수에 의해 '도시 재생과 환경복지', '산림 휴양문화 정책' 등이 소개되었으며, 효과적인 대전시 환경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복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대전시에 적합한 환경복지 정책 수립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올해3월부터 정한도박사의 총괄하에 「대전시 환경복지정책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구성은 수질과 대기,

생활폐기물, 공원복지, 환경성 질환 등 5개 분야로 크게 구분하였다. 또한 환경복지의 개념과 사례 등을 통하여 도시형 환경복지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j](#)



## “ 대전-기니공화국 ODA농업협력 활성화 방안 세미나 ”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는 21일(금)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전-기니공화국 ODA농업협력 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ODA공적개발원조)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지자체간의 국제협력은 아프리카지역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지자체의 지역·농업발전 경험은 아프리카 개도국 ODA개발협력에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과제(대전-기니공화국 ODA 농업협력)의 원활한 수행과 대전시-포레카리아시 자매결연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시 정책담당관,

농업협력 전문가, 개발협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대전-기니공화국 개발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회로 이한규 한국외대 아프리카 연구소 교수의 대전-아프리카 ODA정책 추진방향, 황용수 충남대 농과대학 교수의 대전-기니공화국 농업협력 증진을 위한 ODA사업 개발,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대전-기니공화국 농업협력 추진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j](#)

## “ 대전발전포럼 제45호 발간 ”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 대전발전포럼 제45호에서는 충남도청 이전 후 대전시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 됨에 따라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방지와 해결책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모색해보고자 대전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이라는 주제를 선정했다.

본 포럼은 도시재생 행정, 교통, 환경, 여성·복지 분야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알아보았으며 집필에는 이상호(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임성은(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연구교수), 도명식(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최충식(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장), 박재규(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이 참여해 각 분야별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호 교수는 '스마트 도시재생 전략'이라는 주제로 스마트 도시재생정책의 핵심은 시장 직속 하에 경제재생, 기본재생, 사회문화재생을 복합한 통합모델을 추진하고, 계획과 집행 그리고 성과를 일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일원화된 집행구조의 신설과, 새로운 창조경제를 건인할 일자리와 새로운 ICTs와 녹색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지원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스마트 도시재생 전략하에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포럼의 상세내용은 대전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djri.re.kr](http://www.djri.re.kr))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분기별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기획특집을 마련하여 대전발전포럼을 발간하고 있다. [j](#)

# 대전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기획조정실장 임성복

## 1 대전시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계획

### 추진배경

-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환경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농업의 역할 부각
-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텃밭 가꾸기 등의 도시농업 확산은 세계적 현상
- 이웃 간 소통 단절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의 중요성 증대
-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필요

### 추진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등)
-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 도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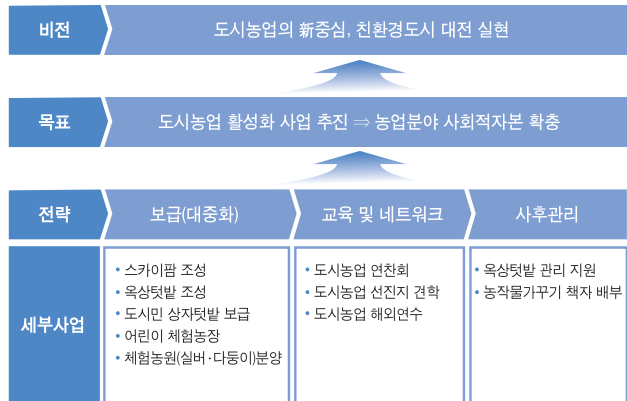
- 인구 및 면적: 1,515,603명(세대수: 566,324세대) / 539.9km<sup>2</sup>
- 주거 형태: 421천호(10년/통계청), 아파트 296(70.3%), 단독주택 82(19.3%), 다세대 28(6.8%) 등
- 공동주택 현황: 717개 단지 / 3,956동 / 303,440세대

### 도시농업 현황

- 주말농장: 33개소(민간 16, 공공기관 17) / 4.3ha / 이용자(1,090명)
- 텃밭상자 분양: 1,300개
- 옥상텃밭 조성: 50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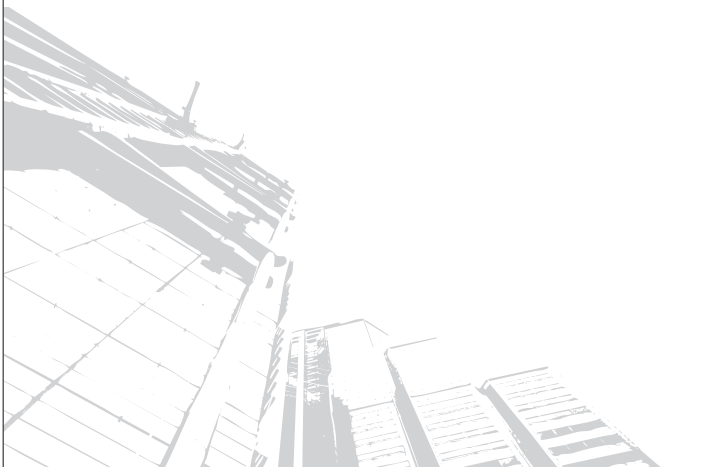


### 도시농업 현황



### 세부사업

- 1 스카이프(하늘농장) 조성 사업
  - 공동체 텃밭 조성
  - 설치장소: 주민공용 공간(열섬완화 일정면적 확보를 위해 옥상설치원칙)
  - 설치시설: 텃밭용기, 안전펜스, 용수 및 방수, 휴게시설 등
  - 도농교류 활성화
  - 아파트단지와 농촌체험마을 간 자매결연을 통한 농촌체험, 농산물직거래, 재능기부등
- 2 옥상텃밭 조성사업
  - 운영주체: 자생단체, 소규모 공동체, 학교장
  - 사업내용: 농작물재배와 옥상경관에 적합하도록 옥상여건등을 고려 옥상텃밭 설치
  - 설치시설: 텃밭용기, 안전펜스, 용수 및 방수, 휴게시설 등
  - 주요작물: 상추, 배추, 열무 등 채소류 및 토마토, 고추 등 과채류





- ③ 도시민 상자텃밭 보급
  - 사업내용: 자치구를 통해 농작물 재배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상자텃밭 보급
  - 지원내역: 소형 텃밭용기, 상토, 모종 등
- ④ 도시농업 어린이 체험농장
  - 사업내용: 도심속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베드형 상자텃밭을 지원 체험농장 조성
  - 지원내역: 베드형 텃밭용기, 상토, 모종 등
- ⑤ 체험농장(살버少婦藍壤다문화) 분양
  - 사업대상
    - 실버 농 원: 대전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 다둥이농원: 대전에 주소를 둔 16세 미만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 대상
    - 다문화농원: 대전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인 다문화 가정 대상
- ⑥ 도시농업 연찬회
  - 사업개요
    - 사업내용: 도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개념과 특성, 효과 등에 대한 올바른 비전 정보 전달 및 교환을 할 수 있는 연찬회 개최
    - 활용계획: 설문조사 작성 후 다양한 의견을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에 반영
- ⑦ 도시농업 선진지 견학
  - 추진방법: 도시농업 실천 또는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
  - 사업내용: 도시농업 실천 도시민을 대상으로 타지역의 도시농업 우수 실천 사례 견학 기회 제공
  - 활용계획: 설문조사 작성 후 다양한 의견을 도시농업 계획에 반영
- ⑧ 도시농업 해외연수
  - 내 용: 시의회, 민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도시농업 해외연수 팀을 구성하여 도시농업 선진국을 벤치마킹
  - 활용계획: 도시농업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접목을 통해 대전형 도시농업 체계 구축
- ⑨ 옥상텃밭 관리지원 사업
  - 사업내용: 2012년 조성된 50곳의 옥상텃밭을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텃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 및 재료비 지원
  - 세부추진방법
    - 텃밭작물 식재 및 재배요령 교육
    - 유기질비료 및 모종상추, 고추, 토마토 등 지원
- ⑩ 농작물가꾸기 책자 배부
  - 대 상: 초보 도시농업인
  - 사업내용: 농업에 관심이 많은 초보 도시농업인들에게 농작물 재배 기초자료가 수록된 책자 배부 및 지도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계획」 주요내용

- 「비전」 도시농업 활성화로 도농상생 및 삶의 질 향상
- 「목표」 '17년까지 도시텃밭 1,500ha, 참여자 수 2,000천명 달성
- 「도시농업 현황(12)」: 도시텃밭 558ha, 참여자 수 769천명
- 「전략」 5개 전략, 26개 세부추진 과제 추진
  - 관련 법령 보완, 지자체 조례제정 지원 등 제도 기반 마련
  - 도시농업농장 조성, 학교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공간 확충
  - 한국형 텃밭모델 및 도시농업 자재 기술 개발 등 R&D 지원
  - 도시농업인 교육 및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 도시농업 이벤트, 박람회 개최 등 대국민 네트워크 강화

## 2 도시농업의 발전과제

### 도시농업의 대표적인 효과

- 지산지소(地產地消)로 환경부산물 최소화, 물류비용의 감소, 도서열섬 효과 저감, 공기정화 등 저탄소 사회 공헌
- 식량자급률 제고, 안전한 먹거리, 원예치료, 세대간 다양한 문화의 상호 교육 등 건강한 문화 형성
- 생물다양성 제고, 음식물찌꺼기 등의 재활용, 토양의 질 개선, 물 순환 촉진 등 생태적 건강성 제고

### 도시농업의 발전과제

- 시민 참여 유도 및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건인해야 할 것임
- 지속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일자리 개념으로 연계시키도록 하고, 취미로 참여한 사람들을 지 도시로 양성하거나 희망근로사업 등으로 연계시키도록 함
- 지정된 지도사 즉 멘토를 교육추진기에 배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 교육 분야에 대한 강화
- 희망근로나 녹색일자리 측면에서 연계하여 참여 동기와 지속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옥상 상자텃밭에 대한 재평가와 보완 필요
- 농사의 효율성이 낮고, 경량토와 상자 등 사용재료의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도입이 쉬운 만큼 포기도 쉽다는 문제점. 현재 보다 발전된 모델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극소수인 상황
- ⇒ 크고 작은 '도시생태텃밭' 조성, 분양이 바람직함

## 3 대전도시농업 발전방안

### 대전도시농업 추진 네트워크 발족

- 대전도시농업포럼이 발족해 있으나 도시농업 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네트워크의 구상체 역할 수행에는 역부족.
- 관, 민, 공익단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대전광역시, 대전농업기술센터, 각 자치구의 사업예산을 전제로 실행력 있는 기구를 설치, 교육, 조사, 시민참여 등 사업 전개 <추진사업>
- 도시농업이 가능한 도시내 공간 조사
- 전국 네트워크 구축 / T/F 구성
- 도시농업 포털 사이트 구축, 운영

### 도시농업 농지의 계획적 관리 및 이용

- 도시지역의 경우 농지를 녹지개념으로 전환,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전 및 관리 필요성 제기
- 농지의 녹지편입을 통하여 생태지향적인 다원적 기능 강화
- 도시에서 농업을 보전할 수 있는 지구지정 검토
- 농업을 해치는 개발행위를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 도시개발에 있어서의 심의 강화, 생태적 보전에 대한 활동지원 등 정책수단 도입



뉴욕의 도시농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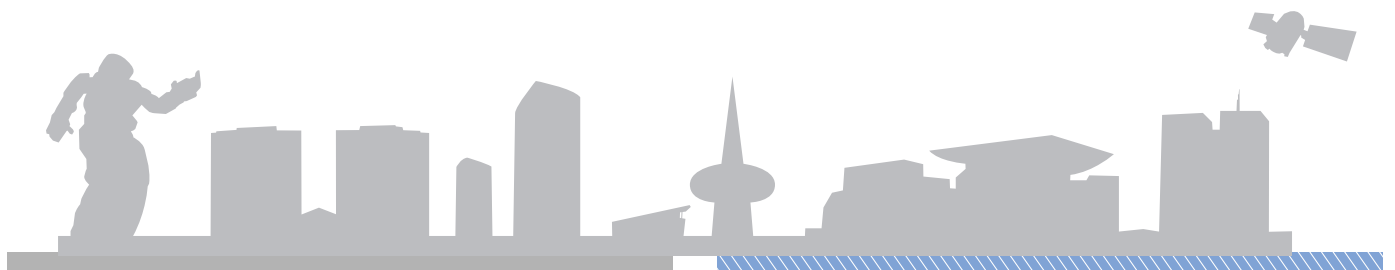
도시농업 관련사업 검토 / 추가적인 보완

- 텃밭농원
  - 주말농장, 옥상농원 실버농원, 다둥이농원(다자녀가족 대상), 친환경텃밭, 학교텃밭 등
- 도시농업 관련시설
  - 시민자연학습장, 원예치료정원
- 도시농업 관련 교육 지원
  -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 전원생활교육, 도시농부학교, 우리농산물 가공교육, 어린이 농심 체험교육
- 도시농업 관련 프로그램
  - 도시농업 그린투어, 원예치료 프로그램, 식물병원, 도농교류관 및 경관조성, 도시농업 네트워크 지원
- 도시농업 관련 조직

※ 2012년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 : PJ009131)에 의하면 위에 열거한 19개 사업중 대전은 5개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참고로 서울은 12개, 부산 8개, 인천 8개임

농업관련 시설 확보 및 프로그램 추진

- 도시농업이 도시지역에 일부 남아있는 형태를 벗어나서 계획적으로 보전되는 농업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 시설로는小菜園, 농지관리 및 분양센터, 주말농장, 도시농업 컨설팅 숍, 농업체험관, 농업생태공원, 원예치료시설, 옥상녹화, 텃밭정원 등이 확충
- 다음으로 실버농업, 복지시설 및 병원과 연계한 메디컬농업, 학교와 학생을 연계한 자연생태학습 및 교육, 소비자를 위한 도시농업 교실 운영 등 도시농업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



## 경제동향

최근 대전지역경제는 전월대비 생산과 소비가 위축된 모습이나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수출과 수입 등 대외거래도 활발한 가운데 물가도 지난달과 보험세를 유지하였음. 전년동월대비로는 생산이 다소 위축되고 소비가 혼조세인 가운데 수출이 부진하지만, 고용상황이 매우 양호한 편이며, 물가상승률도 0.7% 수준으로 지난달 0.8%보다 낮아져 물기는 매우 안정된 모습임.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2년 1월 들어 회복국면으로 반등한 이후 4월까지 상승국면을 지속하였으나, 5월부터 10월까지 후퇴와 회복을 반복하는 가운데, 11월부터 소폭 반등하기도 하였으나, 2013년 1월부터

4개월째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유럽경제 회복지연, 주요국 양적완화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수출과 건설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저성장세 지속 가능성이 상존함.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외 시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일자리 창출, 생활물가 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경기종합지수

- 2012년 1월 들어 회복국면으로 반등한 이후, 4월까지 상승국면을 지속하였으나 5월부터 12월까지 후퇴와 회복을 반복하였고, 2013년 1월부터 4개월째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생 산

- 2013년 4월, 전월대비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하여 부진한 모습이고, 전년동월대비로도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여 3개월째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향후 소비는 신모델 출시에 따른 휴대폰 부품 수출 증가와 자동차 업계의 주말특근 재개 등으로 생산 차질도 다소 완화되면서 개선될 전망이다.

### 소 비

- 2013년 5월, 소비는 전월대비 대형소매점 판매액과 에너지부문의 소비 중심으로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대형소매점 판매액과 전력사용량 등이 감소하였으나 유류와 가스 소비량, 농산물거래량, 자동차등록 등은 증가하였음. 전반적으로 전월대비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며, 전년동월대비로는 3개월째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임.

### 고 용

- 2013년 4월, 고용상황은 전월대비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와 실업률은 감소·하락을 지속하여 개선된 모습이며, 전년동월대비로도 취업자가 10개월째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와 실업률도 전월에 이어 감소·하락을 지속하여 고용상황은 매우 양호한 모습임.

### 물 가

- 2013년 5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축산물과 서비스부문에서 상승하였으나 농산물과 석유류, 내구재 품목에서 하락하여 전월과 보험세를 유지함. 물가상승률은 0.7% 수준으로 지난달의 0.8% 수준보다도 낮아져 최근 물기는 매우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

### 금 용

- 2013년 5월, 금융시장은 글로벌 증시 강세 및 외국인 매수세 유입 등으로 주가는 상승하였고,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 등으로 상승하였음.

### 대 외 거 래

- 2013년 4월 전월대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 지속, 전년동월 대비로는 수출은 농림수산물과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감소를 지속하였고, 수입은 농림수산물,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생활용품, 섬유류,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전반적으로 수출은 저조한 실정인 반면, 수입은 5개월째 증가하고 있음. 무역수지는 2월부터 흑자를 유지한 이후, 4월은 전월과 보험세를 유지함.

